

화씨 451도 (Fahrenheit 451)

소방기술사 · 오리엔트이엠씨 전무이사 || 김동일

영국 영화는 프랑스 영화보다 더 재미가 있다.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말이 아니라, 불어보다는 영어가 더 친숙한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이 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업고 해 본 말이다.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프랑스의 소위 예술영화들에 비하여 영국 영화는 일단 어렵지가 않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최신무기와 매력적인 본드걸이 흥미를 더하는 007시리즈만 해도 현재 22번 째 속편을 제작 중이라고 하니, 이로서도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수년 전 개봉되었던 「화씨 451도」라는 영화가 있다. 미국의 SF 작가 브래드버리(Ray D. Bradbury)의 소설을 영국에서 영화로 만든 것이다.

텔레비전이 만능으로 통하는 미래의 어느 나라에서는 모든 정보나 지식이 모두 텔레비전에 의해서만 전달된다. 인간이 「사상」이나 「고민」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은 모두 책을 읽기 때문이라 규정하고 정부는 책의 소유를 절대 금한다. 이 영화의 원제(原題)이기도 한 “소방대(The Fireman)”는 불을 끄는 대신 세상의 모든 책을 찾아내어 태워버리는 소각대(燒却隊)이며, 영화제목인 「화씨 451도」는 다름 아닌 종이에 불이 붙는 온도이다.

유능한 소각대원 “몬타구”는 우연히 17세의 여인 “클라리스”를 알게 되는데, 텔레비전대로만 움직이는 아내 “린다”에게서 느껴왔던 공허함과 비교하여 클라리스로부터는 생동감과 지적인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남몰래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그 영향으로 몬타구도 책을 읽게 되고 그는 책이 주는 신선함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아내는 몬타구를 고발하고, 그를 잡으러 출동한 소방대장을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인 몬타구는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된다. 하지만 텔레비전 인간들의 획일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탈출에 성공한 몬타구는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산속 오지마을에 안주하게 된다. 영화 「화씨 451도」의 줄거리이다.

작가 브래드버리의 관심사였던 분서(焚書)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진시황제의 지독한 사상탄압으로 설명되는 그 유명한 분서갱유(焚書坑儒), ▲“그 책 속에 기록된 것들이 「코란」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들은 소용이 없는 책이요, 「코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이 될 뿐이다. 따라서 그 책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라”는 종교적 분서(焚書), ▲명의 화타(華陀)를 죽이고 그의 최고 의서를 불태운 조조가 아들의 중병을 당한 뒤 땅을 치는 때늦은 후회,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한 아랍인들이, 그들이 즐기는 목욕물을 데우기 위해 고서 70만 권을 태운 이야기 등등...

텔레비전만 보고 자라는 소위 영상세대와 책을 찾아 읽는 활자병행세대와는 개성이나 논리의 전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깊어 가는 가을, 나만의 매력을 키워줄 쓸 만한 책 한권을 대하고 싶다.